

# 임금체불 개선방안 시행 6개월... '악덕업주' 6명 구속

### 검찰,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관련 업무개선 고액·상습 악덕업주 구속, 정식기소 증가 등 검찰 "신속한 피해회복 위해 만전 기할 것"

검찰이 지난해부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악의적 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이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이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9일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 방안 6개월 시행 성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 체불된 임금 총액이 1조 3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검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해왔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 사업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

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토록 하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더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업무개선방안 시행 결과 6개월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상습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6명 구속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구지검 영동지검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식품제조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속적인 확대와 악의적 체불 사실을 밝혀 구속수

사했다. 이 사업주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개선방안 시행 전 6개월 동안 641명이었던 정식기소 피고인이 시행 후 6개월 동안 989명으로 54.3%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원지검의 경우 정식 기소율이 개선방안 시행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또 대검은 각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지양하고 중폭적 사건 해결에 노력한 결과 일부 검찰청의 기소 중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서 노동법 실무 전문가 128명을 형사조정위

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 조정팀'을 설치해 조정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시검과 순천·통영·해남지검은 거리상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군청, 노동청과 협의해 출장 조정실을 마련하는 등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인파로 가득한 명동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 상습 무면허·음주에 뺑소니까지...운전자들 잇단 실형

### "실형 선고해 위험성에 대해 경중 울려"

범위가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해 위험성에 대해 경중을 울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 47분께 광주 북구 한 네거리에서 술에 취해 졸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 4명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죄질이 나쁜 점,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도

지난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2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8시 20분 광주 서구 한 네거리에서 면허 없이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화물차를 받아 3중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다른 운전·동승자 4명이 다쳤다. B씨는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90%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벌금 800만 원과 함께 면허가 취소됐는데 두 달만에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가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황색 신호에서 과격한 좌회전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험한 운전 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도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C(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19년 9월 5일 전남 나주시 교차로에서 의무 보험에 들지 않고 면허 없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2017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상황에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A씨가 폐차해 재범 근절을 다짐하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

## 찜질방 '알몸 활보' 20대 입건...여성 수면실 들어가기도

전날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찜질방을 활보하다가 말리는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8일) 공연음란·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돌아다니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찜질방을 입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고 나오더니 2층의 여성 전용 수면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찜질방 직원을 걷어

차고 계단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입의 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